

이스라엘은 인종학살 멈춰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가자 학살 1년: 10.6 국제 행동의 날 함께해 주세요

다음 달 10월이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학살을 벌인 지 1년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1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살육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4만 명이 넘고, 부상자는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 중 70퍼센트가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지구에 멀쩡한 건물은 남아있지 않고 인프라는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피란민들이 피신한 유엔 학교와 병원마저 폭격하고 있습니다. 소아마비를 비롯한 질병과 기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의약품과 식량을 비롯한 구호품 반입조차 가로 막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도 지상군 병력을 투입하고 드론 공습과 시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제닌과 같은 서안지구 도시들의 도로와 건물들을 폐허로 만들면서 매일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 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 사이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두고 “대테러 작전”이라고 하지만 팔레스타인 주민을 살해하는 이스라엘이야말로 진짜 “테러리스트”입니다.

1948년, 7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종청소하며 건국된 이스라엘은 이제 나머지 팔레스타인 영토마저 점령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내려 합니다.

휴전 협상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온갖 만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동 지역으로 전쟁을 확대하겠다는 위협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미국 등 서방은 변함없이 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개월은 팔레스타인 연대가 전 세계 곳곳으로 번져 간 시간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재한 팔레스타인인들, 아랍인들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항의해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산, 인천, 대구, 울산, 수원, 원주, 안산, 춘천, 의정부 등에서, 그리고 여러 대학과 학교에서도 연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미국 컬럼비아대학교를 시작으로 전 세계 대학가로 팔레스타인 연대의 불을 지핀 미국 대학생들도 새 학기를 맞아 다시 캠퍼스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한국의 여러 대학들에서도 학생들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재한 팔레스타인 유학생들이 호소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의 권리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점령, 억압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10월 6일(일) ‘가자 학살 1년: 10.6 국제 행동의 날’에 함께합시다! 이스라엘이 인종 학살을 멈추고 팔레스타인이 자유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읍시다!

이스라엘은 인종학살 멈춰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가자 학살 1년

10-6 국제 행동의 날

10월 6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영풍문고 본점 앞 (종각역 5번 출구)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대 집회와 홍보 활동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재한 팔레스타인인·아랍인·국내 시민사회단체 43곳이 함께합니다.



문의: 010-7550-2131 | people.freepalestine@gmail.com | bit.ly/people-freepalestine | 인스타그램 @people.freepalestine
인스타그램과 웹사이트에서 여러 지역의 집회 소식과 가자지구 주민 메시지 등 다양한 사진과 영상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STOP GENOCIDE NOW!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JOIN US

One Year of the Massacres in Gaza:

6 Oct GLOBAL DAY of ACTION

Next Oct. marks one year since Israel's genocidal assault on Gaza, Palestine. Israel has been bombing Gaza and killing Palestinians every single day for the past 11 months. So far, over 40,000 Palestinians have been killed and nearly 100,000 injured. Of these, 70% are women and children.

Israel's bombardment has left no intact buildings in Gaza and gutted its infrastructure. Israel has even bombed UN schools and hospitals where refugees have taken refuge. It is also blocking the entry of aid, including medicine and food, despite the rapid spread of disease and hunger, including polio.

In recent days, Israel has deployed ground troops, drone strikes, and bombed not only in Gaza but also in the West Bank. Israeli forces have been killing and arresting Palestinians daily, leaving roads and buildings in West Bank cities like Jenin in ruins. It is said to be the largest offensive in the last 20 years.

Israel calls it a 'counter-terrorism operation,' but the real 'terrorists' are the Israelis who kill Palestinians.

Founded in 1948 with the ethnic cleansing of over 700,000 Palestinians, Israel now occupies the rest of Palestine and seeks to drive Palestinians out of their homes.

Even amid ceasefire negotiations, Israel is committing all sorts of atrocities. It's not afraid to threaten to escalate the war to the rest of the Middle East, and the West, including the US, has steadfastly supported it.

But the past 11 months have seen a wave of solidarity with Palestine spread across the globe.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has been holding

rallies and marches in the centre of Seoul every Saturday since Oct. last year. Koreans, Palestinians in Korea, Arabs, and people of other nationalities have been protesting Israel's genocide in unison. Voices of solidarity have also been heard in Busan, Incheon, Daegu, Ulsan, Suwon, Wonju, Ansan, Chuncheon, Uijeongbu and many other cities, as well as at universities and schools.

Starting with Columbia Univ. in the US in May this year, American univ. students, who ignited the flames of Palestinian solidarity on univ. campuses around the world, are also returning to campus protests for the new academic year. Students have also taken action at several universities in South Korea, including Korea Univ., Seoul National Univ., and Yonsei Univ.

Palestinian students in Korea are calling on 'all those who support the Palestinian people's right to life and freedom to speak out against Israel, occupation and oppression, and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JOIN US! For the '6 Oct GLOBAL DAY of ACTION' in Seoul. Let's demand that Israel stop its genocide and Palestine find freedom!



Fundraising account Shinhan Bank 110-173-517650 (최영준) Fund will be used for hosting and promoting Palestine solidarity protests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Contact : 010-2196-1917(ENG & ARB) | people.freepalestine@gmail.com | bit.ly/people-freepalestine | [instagram @people.freepalestine](https://www.instagram.com/people.freepalestine)

